



미츠이스미토모해상, 인터넷 전용 해외여행자보험 판매실적 호조

이상우 선임연구원

- 일본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이 취급하고 있는 인터넷 전용 해외여행자보험(net de 보험@)의 판매실적(신계약 건수 기준)이 전년대비 30% 이상 증가하는 등 소비자들의 반응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.
 - 동 상품은 인터넷 판매로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고 여행 목적지별 리스크와 보험기간을 세분화할 수 있어 대면판매 시보다 보험료가 최대 40%까지 저렴하며, 최근에는 일본 업계 최초로 해외여행자보험 재계약 시 추가적인 5% 할인(2년 이내 재구매) 제도를 도입함.
 - 또한, 미츠이스미토모해상과 위탁계약을 맺은 1,800개 대리점 홈페이지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소비자 편의성과 저렴한 보험료, 그리고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특약의 장점으로 인하여 해외여행자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.

- 동 상품의 경우 계약 체결 후 보험증권이 제공되지 않는 대신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계약 내용의 확인 및 확인서의 제공 또는 출력이 가능해 계약절차의 완전한 paperless를 실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임.
 - 계약 후 인터넷 전용 창구에서 최근 계약체결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으며, 고객이 보험증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보험증권의 발행도 가능함.

- 또한, 여행 중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특약상품 가입도 가능함.
 -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은 여행 중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변호사비용보상특약, 긴급 치과치료비용보상특약(자기부담의 50% 보상), 애완동물 귀국지연비용보상특약(애완동물 호텔비용 등 보상), 테러대응비용보상특약 등 다양한 특약상품을 개발하여 취급함.
 - 2010년부터 스마트폰을 통한 상품 가입 서비스도 시작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성을 올려나가고 있음.

(미츠이스미토모해상 보도자료, 일본보험매일신문 1/16 종합)